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21: 사도행전 2장과 방언과 첫 번째 선교 여행

Ted Hildebrandt 박사

서론 [00:25-00:57]

A: AD를 합친 것; 00:00-12:53; 사도행전 2장 오순절- 3가지

### 징조

환영합니다 .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루어 왔고, 초기 교회와 기도 , 그리고 사도들과 집사들과 장로들과 초기 선지자들과 함께 초기 교회의 질서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교리문답식으로 기록했고, 전체 교회에 대한 포괄적인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첫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오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 나. 행전의 묘사적, 규범적 [00:57-3:07]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역사적 문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문서로 받아들이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원칙이 있을 때 어떻게 전환을

이루나요? 이러한 규정은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 모든 시대를 위한 규범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와 같이 역사적 문서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 물이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하셨지만 우리는 물에 올라와서 우리를 위해 물이 갈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그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한 번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었고, 그것은 역사에서 보편화되거나 정상화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많은 부분은 규범적이기 보다는 설명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은 규범적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와 같은 규범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은 교회의 대명령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범적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거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규범적입니다. 반면에, 기술적 사건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것은 더 설명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일회성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보편화될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규범적인 것이 무엇이고, 원칙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과 규범적인 것이 무엇이고, 설명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논의할 방언에 대한 토론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C. 오순절 교회와 다양한 해석 [3:07-6:13]

우리는 약간의 배경 지식과 함께 그것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한 것은 남북 전쟁 직후인 1970년대였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살펴보고, 약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배경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이 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합니까? 저는 이 방에 모든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악한 것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경험이 항상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좋은 지침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  
 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지침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영적 경험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며,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모든 시대에 대한 규범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시대 에 대한 규범인가 ?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잠깐 살펴보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대한 위대한 장입니다. 사실 오순절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많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메노나이트 유형의 교회와  
 같이 산상수훈을 취하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그들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처럼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에 반하는 것들을 그들은 항상 산상수훈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매우 평화주의적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구절을 제시해도 그들은 그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안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방식, 다른 뺨을 돌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

오순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물론 개혁 장로교회는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예정과 선택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 바울의 구절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접하게 되면, 그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점에서 야고보를 보고 야고보가 반드시 자신을 대표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유형의 접근 방식일 뿐입니다. 메시아적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성경을 취하고 구약성경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일반 교회보다 유대인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지만, 다른 많은 교회는 특히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유대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일을 합니다.

## 다. 유월절 잔치의 맥락 [6:13-9:32]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그런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돌아오실 때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도들과 몇몇 여인들과, 에마오로 가는 길을 여행하던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한 번에 500명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한 번에 12명,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또한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을 보고, 12명, 그리고 2명이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같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던 부부가 있었고, 그는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모두 다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다양성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학에서가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고 500명, 12명, 2명, 여성 등 여러 번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신 후 승천합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Penta는 5를 의미하는데, pentagon이 5면체인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은 봄에 있고, 그때가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때인데,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셨고 유월절 직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일종의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는데, 이것들은--유대교의 명절에서는 봄에 있고, 유대교의 명절 체계에서는 봄에 있고, 보통 봄에 밀과 보리의 수확을 기념합니다. 그것들은 수확의 시작이고, 봄에 밀과 보리의 수확의 끝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다른 세 가지 절기는 가을에 있으며,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과 연결되어 기념하는 절기는 가을에 있습니다. 포도, 올리브, 무화과 수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하는 다른 수확들입니다. 과일, 포도, 올리브, 무화과는 가을에 수확되고, 그 절기들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순례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 중 하나이고 오순절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는 봄에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수코트절은 7일 동안 수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순례 절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 E. 오순절의 성령의 세 가지 표적 [9:32-12:53]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오순절에는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은 강한 바람이 들어와 온 집안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들에게 불의 혀가 생겼으니 바람이 불고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는 *glossa* 로 “glossolalia”라고 불리는 것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Glossolalia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방언은 영어 단어이지만, 그리스어로 "혀" 또는 "언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혀를 뜻하는 그리스어와 언어를 뜻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언어는 같은 단어인 이 *글로사*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했거나,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했더라.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소리를 듣고 무리가 모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지만 지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왔고, 터키와 그리스와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그들이 자란 그 외국 땅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언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고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후진적인 시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스빌의 시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언어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언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들의 모국어로 듣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국어로 듣고 그들이 모국어로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파르티아인, 메대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아시아는 터키의 속주이며 중국과 같은 아시아가 아님], 프리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일부 지역, 로마에서 온 방문객, 유대인과 개종자, 크레타와 아랍인. 우리는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다. [또는, 우리 언어] 그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들 중 일부는 조롱하며 말했다. ‘그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

#### F. 군중의 초기 생각과 성령의 통합 사역 [12:53-15:10]

**B: FG를 합치다; 12:53-20:39; 성령의 역사, 행2장**

이제 왜 사람이 그런 종류의 말을 할까요? 사람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모국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취했을 때, 당신이 미국에서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랑스에 있고, 너무 많이 마셨고, 프랑스에 있는 동안 약간의 *Parlez*를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 프랑스어* 로 이야기하고 프랑스어로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그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모국어인 영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취해서 언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모국어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 보편적인 언어였을 그리스어나 아람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에 세 가지 영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언급해야 하고, 이것은--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13에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언급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13.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묶는 역사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영을 마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종과 자유인을 하나로 묶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28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실 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세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 G.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가능한 문제 [15:10-20:39]

그래서, 이제 저는 때때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방언 중 일부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높은 수준의 영성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면 영성에서 사다리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견합니다. 유다는 그들 중 한 명이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설교자로서 마을에서 마을로 갔습니다. 유다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그들은 즉시 영적 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평생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일을 알고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3주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갑자기 50년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걸었던 사람보다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적인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제 영성을 표시하는 표시는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데, 그게 하는 일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이번 학기 제 학생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이 일체성 교회에 대해 말해줬는데, 이 일체성 교회는 방언으로 말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말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성인 중 일부는 방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진짜,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트에서 다시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틴 루터가 방언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위대한 개혁가이자 위대한 개신교도였던 마틴 루터는 그 운동의 전체였고, 역대 가장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중 한 명인 찰스 스펀전은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존 웨슬리는 우리가 아는 한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아는 한 20 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였지만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언을 한 적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방언을 한 적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글썄요, 바울이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글썄요, 바울이 더 많은 언어를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2년을 머물렀기 때문인데, 그곳에서 그는 사방의 방언을 습득했을 겁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대

가장 위대한 성인 중 일부는 방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방언의 목적과 술 취했다는 비난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취하면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면 언어를 바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침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 이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비난을 반박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가 아직 신약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우리는 서기 32, 33년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 어느 책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적어도 서기 60년, 60년대 중반, 64, 65년경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한 10, 15년 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의 계시에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 없기 때문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것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축복과 같은 생각에는 조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의 영성이 있고 방언으로 말할 때  
 자동적으로 그 두 번째 단계의 영성으로 뛰어든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다. 그런 종류의 것에  
 조심하세요. 이 즉각적인 영성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우리는  
 전자레인지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성숙하고 나이를 먹어 지혜로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확인해 줄 외부적인 표징을 원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도 많은 확인 표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방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여기 그리스도, 웨슬리, 스펀전, 루터에 대한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방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영적인 난쟁이로 치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논쟁은 조심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성령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 ㄱ.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성령 [20:39-27:39]

C: HI를 결합합니다. 20:39-30:17; 사도행전 2장 밖의 방언

### 사도행전

그래서 다른 그룹들이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고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고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표징으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다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서 꽤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다음 구절인 8장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조와 두 문화와 두 종교 현상 사이의 모든 적대감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행동 방식에 대해 예수님에게 꽤 갑작스럽게 대답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과 상호 작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 두 사람은 꽤 많이 함께 여행하는 듯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친구이자 어부로 함께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들은 둘 다 그곳에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고 함께 많이 여행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께서 변형, 죽은 소녀, 겐세마네의 특별한 장소까지 허락하신 긴밀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성령만 받았을 뿐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긴장감이 생겨나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한 것과 같은 은사를 나타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티븐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에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사도행전 8:17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17에서 사마리아인들이요.

그 무리에게 영이 임했다고 언급한 다음 구절은 사도행전 10:44에 고넬리우스가 나옵니다. 고넬리우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최초의 이방인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이 있습니다. 질문은 갈라디아서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간 것을 보세요.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까? 즉, 할례를 받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기원후 50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니요, 아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넬리우스는 하나님께서 고넬리우스를 사용하신

모범이었고,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봐요, 저는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먹은 모든 음식은 항상 캔에 "K"가 적혀 있었어요.  
 코셔인데, 저는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깨끗하다고 부른 것을 더럽다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식이 이제 깨끗해졌고 이방인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4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유대인)은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진 것을 보고  
 놀랐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악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시다  
 . 사도행전 10:47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시다. 그들이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는  
 무엇이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아마도 방언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언어로 방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은 그리스어를 말했고 당신은 그리스어를 말했다면 갑자기 이방인들은 유창한 아람어나 히브리어, 아마도 아람어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와,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릅니다. 라틴어 역할과 그리스어를 더 좋아해서 아람어를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아람어에 유창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점은 사도행전 10:44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교회에 접붙여졌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유대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I.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교회에 더함 [27:39-30:17]

이제 교회에서, 사도행전 10장과, 하지만, 아직 여기에 맞지 않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으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3년. 그래서 3MJ에서 바울은 곧장 가서 에베소에 머물렀고, 두라노 학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가 처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군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그럼, 당신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 세례자를 알고 있었고, 아마도 요단 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요한 세례자를 만나고 요한 세례자의 인도로 개종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수님을 구글 검색해서 “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시여. 그는 방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의 의사소통은 인터넷과 같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즉시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요한 세례자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요한이 요구한 대로 죄를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얹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추측은 아마도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바울이 알고 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 또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신도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신도였지만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은 그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 J. The Sitz 나는 고린도 성의

**레벤** [30:17-31:00] D: J0를 합치다; 30:17-52:22; 고린도서의 방언

그래서 이제 교회에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추가되었고, 이방인이 추가되었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요한 세례자의 옛 제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가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랐다면 누가는 “음, 그들은 방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것과 같은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같은 일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를 나열하고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종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그들이 말하는 외국어입니다.

### ㄱ.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말하기 [31:00-36:56]

그러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다른 유형의 방언을 설명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좌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leben* [인생의 상황] 신학자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마다 독일어로 말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무게감을 더해주고 엄숙함을 주지만 *sitz* 나는 *leben*은 "인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sitz* 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leben*.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구약 성경 과정을 수강했고 많은 시편, 시편의 다른 장르가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leben* 과 시편에서 각 장르의 시편은 삶의 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의 삶의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 고린도는 어땠나요? 고린도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는 선원 도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온 선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 하부의 펠로폰네소스를 향해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7마일의 땅을 건너면 200마일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린도 운하라고 불리는 운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곳을 통과하는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단한 바위를 통과했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냥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작은 배였다면 그냥 이 길로 끌고 가서 반대편 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터키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여러분의 물건은 돌아가서 고린도 만으로 들어와서 운반되었습니다. 더 큰 배의 경우, 그들은 한 쪽 배에서 다른 쪽으로 상품을 옮기는 노예를 두어 7마일을 운반했지만, 펠로폰네소스를 돌아가며 향해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고린도는 선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로마 군인들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2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다른 유형의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기도 언어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네 구절: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모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으로 신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이제 대조가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영으로 신비를

말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교회 전체에 실제로 이로운 설교를 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나는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 마디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를 말하고 싶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 요점이며, 나 자신을 교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안하는 바를 말하고, 그냥 내려가도록 하자.

우리는 예언과 방언, 그리고 바울의 대조적인 예언 또는 방언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서의 방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예언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은 그의 본래 언어로 그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 L. 모국어로 전환하기 [36:56-39:35]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친구 페리와 엘레인 필립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1년을 살았고,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바라카 교회로

교회에 갔습니다. 아랍 교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en"을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tahabibi* " 라고 외치고 아랍어로 "Jesus is my friend" 를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랍어에 능통하지 않았지만, "Mah ha shalami" 와 같은 관용어법을 흉내 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랍어로 "감사합니다" 와 같은 중요한 말을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랍 교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아랍어를 조금 배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랍어로 신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아랍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은 흉내 내도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가 정말 강렬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랍어로 기도하고 있지만, 질문입니다. 아랍어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아랍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랍어로 모든 말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랍어에서 영어로 다시 전환해서 영어로 신에게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네. 영어가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어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유창하게 말하고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테지만, 아랍어로 기도할 때는 어색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야 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선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이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기도했을 일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어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국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모국어로 돌아갔을 때, 방에 있는 아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봐, 그러지 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만 마디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게 낫겠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모국어로 돌아가서 모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화하거나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 언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 언어 전체가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그 언어로 다시 바꾸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M. 방언을 말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 [39:35-42:06]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침이 주어졌고, 고린도전서 14:28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읽어 볼게요. 이것들은 바울이 성경에서 제시한 지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언을 말하려면, 따라야 할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저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제 질문은, 그들이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랐는가입니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그들이 이 지침을 따랐는가? 누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이 말해야 합니다.” 저는 두 명이나 세 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그룹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방언을 말할 때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이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입니다.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 있다면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이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한 번에 한 명씩입니다.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 한 번에 한 명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 실제로는 여러 명 이상이 동시에 방언을 말하는 예배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바울은 아니요, 두 명 또는 많아야 세 명이며 한

번에 한 명씩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바울이 누군가가 통역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통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언으로 말하고 아무도 아무것도 통역하지 않는 그룹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통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세 가지 지침은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두 가지 또는 많아야 세 가지 ;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의 덕을 위해 통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두 가지 또는 많아야 세 가지 ; 그리고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방금 기도에서 한 말을 교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 N. 하나님의 언어 [42:06-47:47]

저에게는 좀 더 추상적인 주장이지만, 저에게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셨고, 저에게 있어서, 사실 제 삶에서, 사실 제 삶에서 제 소명 중 하나,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이 디지털 비디오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같은 언어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으로 부르셨다면, 그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사람" 또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름이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고, 그러면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콜 아마르 야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이 정말 아담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설명했듯이, 아니요, 히브리어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가나안 땅의 방언입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 발달한 가나안 방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어가 수메르어나 그보다 훨씬 오래된 다른 언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가나안어는 기원전 2000-1800년경에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가나안 방언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지 가나안 방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가나안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전해진 언어입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언어였고, 신도 같은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 시드기야도 바빌론 으로 끌고 갔을 까요? 그들은 바빌론에서 70년 정도 지냈고, 그때 일어난 일은 아람어를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어는 기원전 586 년경에 사용된 언어였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두 언어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와 비슷하고, 자매 언어이며,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람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아람어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람어로 바꾸셨고, 그래서 에스더서와 다른 여러 부분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그 후 바빌론 유배 이후에 추가된 여러 책의 아람어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수업에서 알다시피, 기원전 3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공통 언어"를 퍼뜨렸는데,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그의 군대가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코이네 그리스어, 즉 공통 그리스어라고 불리는 언어를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공유되었고, 아테네의 방언 그리스어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는 각자 고유한 방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럴 수 없어, 너희는 내 군대에 있고 모두가 같은 언어를 말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는 공통 그리스어라고 불리는 하나의 코이네 로 동질화되었습니다. 코이네 그리스어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후 300년까지 이어졌으므로 약 600년 동안 코이네 그리스어가 있었고, 기원후 300년경 이후에 비잔틴 그리스어로 바뀌었고, 지금은 상당히 다르고 비슷하지만 다른 현대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에스더에게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로 바꾸었고 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코이네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로 말씀하십니까? 그는 항상 정확히 같은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에 능통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라틴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1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인도의 여러 방언,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4에서 "나는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예, 저는 여호와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동사 *하야* 에서 나온 것이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제 제안은 하나님께서 그룹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환하는 대신, 그룹이 이해하는 언어로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패턴이며, 성경에서 2000년 이상 그의 패턴이었습니다.

#### 0. 언어발화의 언어학적 분석 [47:47-52:22]

이제, 방언의 언어 분석, Samaran 이라는 사람이 방언의 언어 분석을 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방언 말하기를 녹음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는 다양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방언의 언어 분석에서 발견한 것은, 이 언어학자들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부족 집단에 들어가서 앉아서 부족 사람이 " 부가 , 부가 "라고 말하면 그들이 " 부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buga " 라고 말하고 곧 그들은 그것의 모든 음성학을 설명하고 소리, 다양한 음조 및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형태소, 의미의 작은 것들을 만들고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단수를 만드는 방법, "I"를 말하는 방법, "you"를 말하는 방법, "they"를 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1인칭, 2인칭, 3인칭의 "I, you, he , she,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 아니면 다른 것을 사용할까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것으로 훈련을 받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Wycliffe Bible Translators가 운영하는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L의 몇몇 사람들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는 전 세계를 돌며 성경을 모든 부족 언어,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학을 훈련시켜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전혀 모르는 부족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잠시 살다가 1년, 2년, 3년, 심지어 25년이나 30년 후에 기본적으로 언어를 해독하고 실제로 그 언어를 기록합니다. 이 부족 집단 중 많은 수가 실제로 그들의 언어를 기록한 적이 없고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이 Wycliffe Bible Translators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성경을 개발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언어학자들은 언어에 정말 능숙하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사마란 이 묘사한 것은 이제 방언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그가 그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여러분은 철학을 하시나요? 철학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는데, 그는 "존재하기 전에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임마누엘 칸트는 "행하기 전에 존재함"이라고 말하고 프랭크 시나트라 "do be do be do"라고 말합니다. 이제 "do be do be do"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do be do be do"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d" 발음의 반복을 들을 수 있나요? 그 발음의 반복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조를 들을 수 있습니다. "do be do be do"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별이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기말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현상을 합니다 . 여러분 중 아기에게 다가가서 아기의 얼굴을 굽어주고 " 아이고 "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쿠치 쿠, " 글썄, 무슨 뜻이지? 반복되는 말이 들리니? 그리고 아기가 "야, 재야, 그렇게 만지지 마. 난 알아들을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아기가 하는 말이고, 아기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 우치 쿠치 쿠" 라고 하면 아기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아기는 "영어로 말해 줘, 난 이런 거 안 해" 라고 말합니다 . 쿠치 쿠 같은 거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 우치 "를 한다는 거예요. 쿠치 쿠, "무슨 뜻이에요? 모음을 끝으로 한 자음의 반복을 많이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글썄요, 사마란은 녹음한 방언 말하기가 " 우치 "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해요. 쿠치 쿠, "따라서 학습된 행동이며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삼발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shishbala* 와 당신은 그것에 대해 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의 룰이나 그루브에 빠지고 사물과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언어학자가 그것에 대해 분석한 것이고 그는 그것이 “do be do be do” 대화나 “oochie” 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쿠치 쿠” 라는 대화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돌아가서, 방언 문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교회를 정말로 분열시켰고, 많은 이런 그룹들이 카리스마 그룹으로 들어왔고, 오래된 전통적인 오순절 그룹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경,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이 제가 관여했던 많은 그룹들, 즉 중단론자들을 정말로 막았습니다 .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이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단론자 라고 부르고 , 그것은 그들이 말하듯이 다른 경륜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P. 카리스마 운동의 이점 [52:22-59:34]

E. ; Combine P(만); 52:22-59:34; **카리스마 운동의 혜택**

저는 카리스마와 오순절 교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것 중 하나가 열정적인 정신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되고 오래

지속된 교회 중 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열정적인 감각으로 정말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 속에 뛰어들어 이런 종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 있는 그레이엄 성경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처음 졸업한 반은 아마 20, 24-25세였을 겁니다.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성경 대학에서 제가 가르쳤던 사람 중 한 명은 쿡 목사였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아마 지금은 그와 그의 아내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쿡 목사가 졸업을 했고, 그는 오래된 오순절 설교자였고, 그 당시 저는 테네시 주 브리스톨 지역의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졸업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제게 다가왔고, 그들은 제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쿡 목사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오순절 설교자였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제 수업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정말 분명했고, 그는 제 학생이었지만 저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에게서 활력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졸업했을 때 그의 아내가 제게 다가와서, 기본적으로 그녀는 저에게 커다랗고 오래된 테네시 곰인형 포옹을 했습니다. 그녀는 큰 여성이었고, 저를 땅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여성은 저에게 곰인형 포옹을 했고, 저를 땅에서 들어올리면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고, 당신은 성령을 받는 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질문인데, 그녀가 저를 그렇게 공중으로 들어올릴 때, 당신은 “네, 부인,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 가장 친절한 말 중 하나였을까요? 답은 : 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너무 가깝고 우리는 당신과 가깝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절박한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한 가장 좋은 말 중 하나였고, 저는 단지 이러한 교파적 구별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독특함 이 어떤 의미에서 씻겨 나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갈라놓을 모든 것을 멀리하고 있지만 , 거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존경심이 카리스마적이고 오순절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이 모든 토론이 끝난 후 그것이 그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견이 맞지 않는 일도 있었고, 저는 제 입장을 설명했지만, 결국 올해 이 수업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은 근본적으로 오순절주의자였고, 그 후에 그녀와 이야기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극복했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독교를 존중하고, 방언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제 생각은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순절주의자들의 열정을 사랑하고, 솔직히 말해서 전통적인 맥락에 있는 우리 중 일부는 절실하게 그 열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차이점을 존중하세요.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다루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것들이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신학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주요한 것에는 전공하고, 사소한 것에는 부전공합니다." 실제 사람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하거나,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복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여러분은 주요한 것에는 전공하고, 사소한 것에는 부전공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이 문제는 실제로 사소한 문제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돌아오실 것인지, 환난 중간에 돌아오실 것인지, 아니면 환난 후에 돌아오실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7년 환난이 전혀 있을 것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핀 머리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와 같습니다. 주요한 것에는 전공하고, 사소한 것에는 부전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사소한 문제로 끌어들이려 하고, 당신은 지혜롭게 분류해서 이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고, 사소한 문제를 변호하고, 사소한 문제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비록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둡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워하는 것은 쉽고, 헤어지고 차이를 갖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는 친구와 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 문제입니다.

**Q. 바울의 선교 여행 [59:34-61:09]**

**F: QX 결합: 59:34-81:24; 1 바울의 선교 여행**

이것은 터키[소아시아]의 지도이고, 우리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어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잠시 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전환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있으며, 그 중 많은 여행이 터키의 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터키는 그들이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또는 터키이고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벗어난 저 아래에 있고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저 위에 있고 그리스는 여기 아래에 있고 여기는 터키입니다. 바울이

타르수스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타르수스는 터키가 시리아와 만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타르수스는 너무 멀지 않고, 거기에서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는 에베소이고, 바울은 잠시 머물렀고, 방금 이야기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곳이 여기고,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파워포인트와 다른 것들을 사용했으므로 이것을 직접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지도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저는 이 지도를 좋아합니다. 일종의 위성 이미지이고 좋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 R. 첫 번째 선교 여행: 워크스루 [61:09-65:45]

이제,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나 만화 버전이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기본적으로 서기 46년에서 48년까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날짜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으므로 날짜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 50년을 예루살렘 회의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겠지만 서기 50년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언제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 이전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서기 50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전입니다. 따라서 서기 46-48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선교 여행은 모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모두 이곳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시작합니다. 안티오크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모두 안티오크에서 시작됩니다. 안티오크가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칭호로 불립니다. 길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길, 그리고 실제로 NIV에서는 대문자 W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또한 종파라고 불렸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 내에서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지금은 나사렛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크입니다. 이제 제가 시리아의 안티오크라고 말하자마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안티오크가 몇 개 더 있을까요? 마치 인디애나주 워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디애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워소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폴란드 워소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큰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특히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처음에 사울이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일부 기독교인은 "이 녀석은 전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침투해서 우리도 죽이려고 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완강하게 막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 공동체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일종의 평화 조성자이자 화해자이며 좋은 사람,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캠퍼스에도 바나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격려자이며 격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부르신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포스텔로* , 그들은 파견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역할이 바울과 바나바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아니요. 지역 사회가 그들을 불러 인정하고, 지역 사회가 그들을 승인하며, “가도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나갑니다.

그들이 처음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처음 가는 곳은 키프로스입니다. 시리아 해안 바로 옆에 있는 이 섬은 터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전 세계를 여행한 사람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키프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고 싶지만, 리차드 클리브가 키프로스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을 보면 그저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 왜 그들은 안티오크에서 키프로스로 갔을까요? 글썄요,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 Paphos , Cyprus [65:45-67:52]

그래서 그는 여기로 가서, 그들은 여기 파포스 로 가서 ,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바 예수 라는 사람이 있고, 총독 수르 기오

바울로가 있는데 ,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을 뜻하고,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는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질문: 예수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많았나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당시에는 많은, 많은 예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예수가 있는데 , 그는 마법사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이 바 예수 마법사가 와서 총독 세르기오 바울로 앞에서 바울과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 바울이 그 사람을 눈멀게 하고, 바 예수는 총독인 세르기오 바울로 바로 앞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 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랍고 기본적으로 세르기오 바울로는 이 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 이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표적, 기적과 믿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답은 예,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르기오 바울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총독이고, 바리 -예수는 얼마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키프로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장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키프로스, 바 예수 , 세르기오 바울로는 바 예수가 눈이 멀었다고 믿습니다 .

#### T. Perga (터키 중남부 팜필리아) [67:52-70:11]

이제 그들은 출발하여 이곳 페르가로 올라옵니다. 페르가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 사도행전 13장에서 페르가 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모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13 바나바와 바울은 청년인 요한 마가가 뒤따릅니다. 요한 마가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마가서를 쓴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친척이었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요한 마가는 페르가 에서 그만둡니다 . 그래서 요한 마가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안디옥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 마가는 그만둡니다.

방금 이걸 읽어 볼게요 .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비통함에 빠져서 페르가 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 요한은 그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었고, 사실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은 이번에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요한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우정이 깨졌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돌아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와 요한 마가와 함께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인 실라를 택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우정이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전쟁을 겪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겪은 일 때문에 정말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크는 페르가 에서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 우리는 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디모데후서 4:11에 있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아마도 서기 68년경에, 디모데에게 “ 가서 요한 마가를 데려와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나와 내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가 생애 말년에 바울과 요한 마가가 화해합니다. 바울은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그가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피시디아의 페르가 입니다 .

[70:41-73:05]

이제 바울은 안티오크로 향하고, 당신은 "아, 아니, 또 다른 안티오크"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프시디아 안티오크입니다. 왜 안티오크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안티오크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시대로 돌아가면 안티오크스가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장소에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은 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갈라디아라고 불릴 것입니다. 북쪽 갈라디아와 남쪽 갈라디아가 있는데, 이에 대해 큰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곳을 남쪽 갈라디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가서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거의 온 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질투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하는 말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회당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가서 첫째 주에 여행하는 랍비 같은 사람이 되어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바울은 똑똑하고 매우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 주에 군중이 두 배로 늘어나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군중과 함께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질투하게 되면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하기 시작하고 보통 그를 쫓아내고, 때리고, 돌로 치고, 바울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바울이 도망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반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디아 의 안티오크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의 돌아섬을 볼 수 있습니다.

#### V. 이코니움 [73:05-74:18]

거기에서 안티오크 에서 그는 이고니온 으로 내려갔습니다 . 그리고 이고니온 에 대해서는 오래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48에 "영생에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믿는 것이 미리 정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마서 밖에서도 같은

종류의 어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고니온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 이고니온 에서 바울은 다시 설교했고, 안티오크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독약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이고니온 에서 바울을 죽이고 없애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 바울은 그 음모를 알게 되었고 리스트라 로 도망쳤습니다 . 도망칠 때가 있을까요 ? 달아날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고니온 에서 바울은 꼬리를 감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 **W. 리스트라 : 신이 되다/돌로 만들어지다 [74:18-79:40]**

그가 리스트라 에 도착했을 때 , 리스트라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제가 14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라 에서 일어날 일은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 이고니온 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와 같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매우 효과적으로 말하여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었지만,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선동하여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말했고, 주님은 은혜의 메시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음모가 진행 중이었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리스트라 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리스트라  
 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 ” 리스트라 에 발을 딛고 앉은  
 불구자가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였고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똑바로 바라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치유의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발로 일어서라!’ 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작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 남자가 불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위아래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군중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리코 니아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언적 지역 언어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 리코 니아어로 소리쳤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주요 연설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것은 그들이 먼저 리스트라 에서 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 그는 이 불구자를 치료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신이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컸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여겨지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겨지는데 그가 주요 연설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예언자와 같고 제우스는 별로 말하지 않지만 헤르메스는 항상 말합니다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키가 작고 통통하며 대머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좋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울과 같고, 코가 굽었고, 매우 친절합니다. 중동 문화권에 있었다면 그가 그 역할에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갑자기 사람들이 가서 바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고 니온 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종의 여과가 되어 균중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구자를 고치고 리스트라 에서 신이 되었고 ,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었고, 그런 다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독살한 후 바울은 그들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올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몸을 망가뜨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고, 아마도 머리에 돌이 맞아 눈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나를 위해 네 눈을 뽑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에는 그 결과로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바울이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불구자를 고쳐서 신이 된 곳입니다. 군중이 얼마나 번덕스러운지 보십니까? 군중은 그를 위대한 신의 치유자로 환호하다가 불과 몇 구절 후에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중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한 순간은 찬양하고 다른 순간은 찬양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있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라는 바울이 정말 심하게 맞고, 불구자를 고쳐서 신이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한 명인 디모데를 데려온 곳이 리스트라입니다. 디모데는 리스트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곳입니다. 디모데는 리스트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가 가는 1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4, 5, 6년 후인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를 데려올 것입니다.

## X. 더비와 1차 선교 여행의 끝 [79:49-81:24]

그는 마침내 더비로 갔고, 더비에서 선교에 대한 흥미로운 종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더비에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나와 있으며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찰적인 메모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끝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리스트라 , 이고니온 , 안디옥을 거쳐 자신의 발자취를 되짚어갑니다. 위, 위, 집으로 가는 길. 이것이 서기 46-48 년경에 일어난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후 바울은 안티오크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예정이며, 그들은 기원후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열 것입니다. 베드로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 사실 기원후 48-49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바로 직전에 남부 갈라디아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 Y. 요한 마가는 왜 그만두었을까요? [81:24-82:44]

G: YZ를 합치다; 81:24-90:11; 요한 마크 퇴위 , 예루살렘

## 공의회

존 마크는 왜 그만두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존 마크가 처음 터키에 도착했을 때 향수병에 걸려 그만두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고 그냥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안했고, 제 생각에는 터키에 도착했을 때 폴이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키프로스에 있었을 때 바나바스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이고, 삼촌 바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키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스는 뒤로 밀려나고 폴이 주요 화자가 된 것 같습니다. 존 마크가 삼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약간 화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마크와 폴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바나바스에서 폴로 옮겨가면서 폴은 분명히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존 마크가 약간 환멸을 느끼고 그 시점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르는지에 대한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가 그만두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했을 뿐이고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중 일부가 바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마가는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신뢰는

다시 쌓기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하면 그냥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용서합니다. 신뢰는 다시 확립되어야 하며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 **Z. 이방인에게 복음: 프시디아 의 안티오크 와 예루살렘 회의 [82:44-90:11]**

그들은 안티오크와 프시디아 로 올라갔고 우리는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했고 그들은 항상 먼저 회당에서 시작하는 듯합니다. 세 번째 주에 유대인들은 질투하게 되고 안티오크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서기 50년 예루살렘 협의회가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질투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까요? 회당, 교회에 질투가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코니온 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음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코니온 에서의 음모는 그들이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망칠 시간이 있습니다. 리스트라 에서 그는 불구자를 고치고, 그들은 신이 되었고, 제우스는 바나바이고 헤르메스는 바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는 리스트라 에서 올 것입니다 .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여론과 더비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고통과 성장 사이에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고통과 성숙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고통은 지식을 가져온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8은 제가 성경에서 싫어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통해서이고 그것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성공으로 마케팅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면 삶이 잘 될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국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를 얻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지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이며, 기본적으로 키프로스 와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서기 48-49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며,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여지는가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이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기본 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진술 중 하나로, 단순합니다. 훌륭하고 학자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탐구하기에 좋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은 몇 가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서기 50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언제였습니까? 이 서기 50년 바로 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 서기 50년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나누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예루살렘 회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모세가 가르친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  
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그들이 그들에게 준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피를 먹지 않는  
것, 반드시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에서  
한 몸으로 모이려면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 하나는 피가 없고, 다른 하나는 성적  
부도덕이 없으며, 그저 명백하게 했을 뿐입니다. 구약성경도 간통이

없다고 명백하게 하지만, 그들은 그저 이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상고기 금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금지,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서에서 나중에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대체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공동체를 위해 피 금지, 성적 부도덕 금지, 우상고기 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글을 썼는데,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서 안티오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지금 그의 첫 번째 편지로 썼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데이브 매튜슨은 데살로니가전서가 실제로 먼저 쓰여졌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학자들이 있는데, 데이브는 신약성경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는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바로 쓸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트를 살펴보면 많은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안티오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바울의 세 가지 선교 여행은 모두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안티오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Rob Huseland 와 Timothy Carr  
가 필사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